

‘그리니엄’ 기대, ESG 채권 급성장… ‘그린워싱’ 우려도

(그린+프리미엄)

올 104개사 ESG채권 신규상장
지난해 전체 기관보다 4.5배 ↑
무디스, 글로벌 747조 발행 예측

이름만 ESG ‘그린워싱’ 문제 부각
이행과정 구체적 공시 필요 지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ESG 연계를 늘리라는 시장의 요구와 ‘그리니엄(그린+프리미엄)’이란 채권 발행 유인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ESG 채권 발행이 활발해지는 만큼 채권의 다양성과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ESG 채권 크게 늘어…발행기관 4.5 배 증가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ESG채권을 신규 상장한 곳은 104개사로, 지난해 전체 발행기관 수(23개)보다 약 4.5배 더 많다. 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 은행 등이 ESG 채권에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다. 같은

〈사회투자책임채권 기간별 신규상장 내역〉

(기간 2021.01.01~2021.07.09)

채권종류	발행기관수	종목수	신규상장금액(원)
녹색채권	46	84	9조4340억
사회적채권	31	203	35조6594억
지속가능채권	30	88	7조2600억
전체	104	375	52조3543억

한국거래소

기간 상장 금액은 5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신규 상장 금액(59조원)의 약 90%를 벌써 따라잡은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도 인기다. 국제신용 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6500억달러(약 747조원)에 달하는 ESG 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작년(4910억달러)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ESG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주식과 달리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돼 자금 사용처와 시기 등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채권 발행 시 ESG 평가도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ESG 채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외적인 평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크다.

◆ 시장 수요와 ‘그리니엄’에 주목

국내외적으로 ESG를 요구하는 투자자와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을 추가했다. 내년까지 운용 기금의 최대 50%를 ESG와 관련된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기업이 기후변화와 ESG 관련 사항을 더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기준을 수

정하고 있다. 같은 달 ESG 공시를 의무화했던 유럽연합(EU)은 오는 14일 탄소국경조정제(CBAM·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나라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SG를 반영하는 채권에 프리미엄이 붙는 ‘그리니엄(Greenium)’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리니엄이란 ESG 채권을 발행할 때 일반 채권보다 차입금리가 더 낮게 책정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ESG 채권의 경우 신용 스프레드가 일반채권에 비해 낮다.

◆ ESG 채권, 지속 가능성에 관계

ESG 채권 시장이 커지는 만큼 내실을 다지는 게 시급하다 얘기도 나온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사업이나 채권에 ESG 인증을 붙이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신규 ESG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식의 채권 발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미국 SEC와 금감원이 연이어 경고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두 기관은

ESG의 이름만 단체, 실제로는 ESG와 관련성이 낮거나 상반된 투자를 한 펀드들에 경고한 바 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팀장은 “2~3년 정도 (ESG 채권) 발행 규모가 커지고 나면 그린워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기업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ESG 채권을 발행하고, 이행 과정도 구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호주의 최대 보험사인 QBE는 2017년에 성평등 채권(Gender Equality Bond)을 발행한 후 매년 홈페이지에 이행 보고서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평가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QBE는 사내 프로젝트를 통해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남성이 300% 증가했다는 식으로 ESG의 의미에 부합하는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했다.

국내 기관과 기업도 ESG에 관여할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ESG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유경 수습기자 noon@metroseoul.co.kr

삼성물산, 건설현장 안전비용 대폭 강화

자체 안전강화비 편성 운영
협력업체에 100% 선집행

삼성물산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비’를 편성하는 등 안전 관련 비용을 대폭 늘린다.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인 안전강화비를 편성해 투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법정 안전관리비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인 안전강화비를 편성해 투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따라 공사 금액의 1.20~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비용을 더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안전관리비 외에 현장의 자체 판단으로 안전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강화비를



삼성물산이 ‘안전강화비’를 편성하는 등 안전 관련 비용을 대폭 늘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활용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강화비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투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현장에서 자체 판단으로 지출하면 삼성물산이 정산해 주는 개념이다.

삼성물산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도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금과 함께 100% 선집행할 계획이다.

매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기준 방식에서 탈피해 계획된 금액 전액을 선지급해 협력업체가 공사 초기부터 안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 중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해도 실제 사용금액을 추가로 정산해 줄 방침이다. 현장의 안전 제고와 함께 협력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

한화건설 ‘포레나 영등포’에 로봇 음식배달 서비스

단지 내 단차 없애고 자동문 도입
원패스키 이용 자유로운 이동 가능

한화건설이 12일 ‘한화 포레나 영등포’에 로봇 음식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달로봇은 원격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고 충수를 입력해 원하는 층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로봇은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음식이 도착하면 입주민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다. 배달된

음식은 로봇이 집앞까지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한화건설은 로봇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단지 내 단차를 없애고 여닫이문 대신 자동문을 도입했다. 로봇은 포레나 원패스키(One-Pass Key)를 이용해 단지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에도 도입한 로봇배달 서비스는 한화건설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7월부터 함께 준비해 온 서비스다. 한화건설은 향후 신규 단지별 적용환경을 고려해 서비스



한화건설이 새로 도입한 아파트 로봇 배달 서비스. /한화건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원혁 수습기자 wonster@

하반기 2배 빠른 ‘DDR5’ 양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올라탄다

株라큘라의 종목

아이에스씨

반도체 업체 테스트 소켓 납품 판매단가·출하량 고성장 기대 신규사업 FCCL 매출발생 임박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는 아이에스씨(ISC)의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테스트 소켓 매출의 성장뿐 아니라 오는 2022년부터 새로 발생하게 될 연성동박적층판(FCCL) 매출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 전망이 대체적인 가운데 그 수혜가 ISC에도 반영될 것이라 전망이다.

최성환리서치알음수석연구원은 12일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에서 ISC에 대해 “하반기에 차세대 DRAM으로 꼽히는 DDR5 양산을 시작하는 데다 신규사업인 FCCL 부문에서 매출발생이 임박했다”며 “여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도 오르는 등 전 사업부의 구조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으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러버형·포고핀형)과 테스트 부품(커넥터·테스트보드)이 주요 제품이다. 실리콘 러버 소켓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 애플,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ARM 등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고 있다. 2014년 글로벌 점유율 2위 업체인 일본 JM

T를 인수했다.

비메모리형 소켓 비중이 역전하며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다.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를 출하하기 전 제품의 전기적 특성을 최종적으로 검사할 때 사용하는 소모품이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모두 사용된다. ISC의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실리콘 러버형 소켓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포고핀형 소켓보다 반도체의 손상과 주파수 손실이 적다. 대량생산도 가능해 활용도도 높아지는 중이다.

최 연구원은 “2017년 25%에 불과했던 비메모리용 소켓 매출비중이 올해 60%까지 상승하며 재평가가 필요 한 시점”이라며 “영업이익률 역시 가장 높았던 2017년의 20%를 웃도는 수준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DRAM의 세대교체를 이뤄낸 점 역시 긍정적이다. ISC의 메모리 반도체 소켓의 평균판매단가(ASP)와 출하량 모두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모델인 DDR4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최대 2배 빠른 DDR5를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리서치알음은 올해 ISC의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40억원, 36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26.5%, 99.2%씩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적정주가로 3만3800원을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 제품의 다양화와 전환사체 물량 해소, 비메모리형 매출비중의 역전으로 할인요소들은 대부분 사라졌다”고 총평했다.

/송태화 기자 alvin@